

이시카와 타쿠보쿠의 단가에 그려진 '세쓰코'

-“슬픈 장난감”을 중심으로-*

윤 재 석**

(e-mail : jsyun@hanbat.ac.kr)

<목 차>

- | | |
|---------------------|-------------------------|
| 1. 들어가며 | 4. '세쓰코'를 읊은 단가(短歌)의 해석 |
| 2. '세쓰코'에 대하여 | 5. 맺음말 |
| 3. '세쓰코'를 읊은 단가(短歌) | |

キーワード：節子(Setsuko), 妻(wife), 女性(female), 短歌(Tanka), フェミニズム (feminism)

1. 들어가며

이시카와 타쿠보쿠(石川啄木, 이하 타쿠보쿠)의 단가(短歌)에는 여성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모리오카 중학교 시절부터 연애하며 결혼한 아내 세쓰코, 홋카이도 방랑시절 하코다테 야요이초등학교 임시 교사 재직 시 동료 교사였던 타치바나 치에코(橘智恵子), 역시 홋카이도 쿠시로(釧路) 시절 만났던 기생 코야코(小奴) 등이다. 이상의 여성을 읊은 단가(短歌)의 수를 보면 아내 세쓰코 11수, 동료교사 타치바나 치에코 22수, 기생 코야코 13수이다. 중학교 시절부터 연애 상대였던 아내 세쓰코보다 홋카이도 방랑시절에 불과 수개월 동안의 동료교사였던 타치바나 치에코를 읊은 단가(短歌)의 수가 많은 것은

* 이 논문은 2017년도 한밭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 한밭대학교, 교수, 일본근현대문학

흥미롭다. 또한, 쿠시로 시절의 기생 코야코를 읊은 단가(短歌)의 수도 아내 세쓰코 보다 많다.

동료교사 타치마나 치에코나 기생 코야코는 타쿠보쿠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였던 것인가? 전기 연구에 의하면, 타쿠보쿠는 타치마나 치에코의 ‘백합과 같은 어린 사슴’의 ‘청초한 모습’에 ‘강하게 마음을 빼앗기는’등 ‘사모’의 대상이었다고 한다.¹⁾ 또한, 기생 코야코에 대해서 ‘쿠시로 시절의 타쿠보쿠가 코야코를 얼마나 좋아했는가는, “한줌의 모래 一握の砂”의 그 감미로운 추억을 많이 읊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다.²⁾ 타쿠보쿠는 이러한 맥락에서 타치마나 치에코와 코야코를 읊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타쿠보쿠가 이러한 맥락에서 타치마나 치에코와 코야코를 그의 단가(短歌)에서 다수 읊었다고 한다면, 그의 아내 세쓰코를 읊은 11수는 지나치게 적은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의문을 가지면서, 타쿠보쿠의 단가(短歌)에 나타난 아내 세쓰코의 의미를 타쿠보쿠의 입장이 아닌 아내의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의 고찰 대상 텍스트는 “슬픈 장난감”이다.

2. ‘세쓰코’³⁾에 대하여

타쿠보쿠의 아내 ‘세쓰코’의 일생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⁴⁾ 메이지19년 이와테현(岩手県) 미나미이와테군(南岩手郡)우에다마을(上田村)에서 군청 공무원인 호리아이 츄소(堀合忠操)의 장녀로 태어났다. 아버지 호리아이는 군청 퇴직 후 타마야마마을(玉山村) 촌장, 하코다테(函館) 건망어업수산조합서기장 등을 역임하는 등 나름 지역의 유지였다고 할 수 있다.

세쓰코는 메이지25년 모리오카(盛岡)제일보통소학교에 입학하였고, 메이지29년에는 모리오카고등소학교, 메이지32년에는 미션스쿨인 사립 모리오카여학교

1) 国文学編集部(1978) 『石川啄木の手帳』 学灯社, p.125.

2) 上掲書, p.83.

3) 타쿠보쿠 연구사를 보면, 아내 세쓰코에 대한 기록의 대부분이 타쿠보쿠의 입장에서 쓰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아내 ‘세쓰코’의 시각에서 정리해 보았다.

4) 岩城之徳編(1981) 『石川小伝』 『別冊国文学NO.11 石川啄木必携』 学灯社, p.222.

石川節子(1978) 『石川啄木の手帳』 学灯社, p.49

国際啄木学会編(2001) 『石川啄木事典』 おうふう, pp.612-637.

에 진학 하였다. 당시, 여학교에 진학하였다는 것은 신식 교육을 받은 재원이 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모리오카 중학교 2학년이었던 이시카와 하지메(石川一, 타쿠보쿠의 본명)와 알게 되며 사랑에 빠지게 된다. 세쓰코, 타쿠보쿠 만14세였다. 메이지35년, 타쿠보쿠는 모리오카중학교 5학년을 중퇴하고, 문학인으로서 성공 하 고자 상경하였다 실패하고 병든 몸으로 귀향하였는데, 이 때 세쓰코는 타쿠 보쿠에 게 큰 위안이 되었다고 한다.

메이지37년, 세쓰코는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타쿠보쿠와 약혼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이웃 마을에 있는 보통고등소학교의 임시교사(재봉담당)을 약 1년 간 수행 하였다.

메이지38년, 결혼식에 불참한 타쿠보쿠의 불성실함을 지탄하는 주변 사람들 에게 ‘사랑의 영원함을 믿는다’라고 공언하며 의연히 결혼식을 감행하였다.

타쿠보쿠와의 신혼생활은 단란한 면도 있었지만⁵⁾, 직업이 없는 가장으로 인 해 세쓰코는 전당포 이용, 빚, 부업 등의 현실에 직면하였다.

메이지39년, 타쿠보쿠의 고향 시부타미(渋民)에서 방2칸을 빌려 생활하며 장녀 료코(京子)를 출산하였다.

메이지40년, 타쿠보쿠가 생활 타개를 위해 홋카이도로 건너가게 되자, 세쓰 코와 료코는 모리오카의 친정에, 어머니는 이웃(米田씨)에 폐를 끼치게 되었다. 이 때, 타쿠보쿠는 일가이산의 슬픔에 대해 ‘일가이산이라는 것이 이것이 구나. 옛날에는 이러한 것을 단지 소설 속에서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일기에 쓰고 있다. 타쿠보쿠의 무능으로 인해 결혼 2년 만에 딸을 데리고 친정살이 하러 들어간 세쓰코의 아픔에 대한 기록은 이것이 전부이다.

타쿠보쿠는 약2개월 후, 하코다테에 집을 빌려 가족을 맞이하였다. 그 후, 삿 뿌로, 오타루, 쿠시로를 전전하다, 가족을 하코다테의 문학친구 미야자키 이쿠 우(宮崎郁雨)에게 맡기고, 문학적 성공을 기대하며 단신 상경하였다. 이러한 동안 아내 세쓰코의 궁핍한 생활,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고조되었다. 세쓰코는 하코다테 구립 타카라소학교(函館区立宝小学校)의 임시직 교원을 하며 가계를

5) 세쓰코의 책상 위에는 「몇 권의 시집, 음악 친구(音樂の友), 묘조(명성), 비장의 바이올 린」이 놓여 있었다고 타쿠보쿠는 그의 수필 「한천지(閑天地)」에 쓰고 있다. 또한, 타쿠 보쿠는 문예지 『소천지(小天地)』를 간행하는데 여기에는 세쓰코의 단가(短歌) 20수가 게재되어 있다.

도왔다.

메이지42년 6월, 타쿠보쿠는 홋카이도의 가족을 맞이하였지만, 세쓰코의 몸과 마음은 심히 병들어 있었고, 시어머니와의 갈등도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세쓰코는 9월 딸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갔다.

타쿠보쿠의 사랑과 문학적 재능을 신뢰한 세쓰코는 3주 후 집으로 돌아왔다. 메이지43년 10월 4일, 세쓰코는 장남 신이치(真一)를 출산하지만 동월 27일 사망하는 단장의 슬픔을 맛보아야만 했다.

메이지44년, 세쓰코는 부실한 산후조리 등으로 결핵에 걸리게 된다. 이 결핵은 타쿠보쿠의 시어머니 카쓰에게서 전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이지45년3월 타쿠보쿠의 어머니가 결핵으로 사망하였고, 1개월 후인4월13일 타쿠보쿠 역시 결핵으로 사망하였다.

임신8개월이었던 세쓰코는 타쿠보쿠의 여동생 미쯔코(光子)와 선교사 켄더의 소개로 선교의사인 콜반을 알게 되었고, 콜반의 도움으로 6세인 장녀 료코를 데리고 치바현 아와군 호쵸(千葉県安房郡北条)의 결핵 요양시설에서 차녀 후사에(房江)를 출산 하였다.

얼마 후, 세쓰코는 두 딸과 함께 하코다테로 이사 간 친정 집 근처에 집을 빌려 친정에 의지하며, 타쿠보쿠의 문학적 친구인 토키 아이카(土岐哀果)의 원조를 받으며 근근히 생활하였다.

다음 해인 타이쇼2년 (1913), 세쓰코의 병세가 악화되었다. 간직해 왔던 타쿠보쿠의 일기, 유고문집 등을 토키 아이카 등에게 부탁하고, 5월5일 시내의 한 병원에서 2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3. ‘세쓰코’를 읊은 단가(短歌)

단가(短歌)집“슬픈 장난감”에서 아내‘세쓰코’를 읊었다고 할 수 있는 단가(短歌)는 이와키 유키노리 “이시카와 타쿠보쿠 전 단가(短歌) 평석”⁶⁾에 의하면 11수라 할 수 있다.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의 숫자는 “슬픈 장난감”에 게재된 순번이다. 단가(短歌)의 기본적인 해석은 타쿠보쿠 연구사에 있어 가장 보

6) 岩城之徳(1985)『石川啄木全歌評釈』筑摩書房, pp.296-391

편적이라 할 수 있는 이와키 유키노리의 해석에 따른다.

- (1) 책을 사고 싶다 책을 사고 싶다고 빗대어 말 할 생각은 없지만 아내에게 말해 본다.(6)
- (2) 여행을 생각하는 남편의 마음 꾸짖고 우는 처자식의 마음 아침 식탁!(7)
- (3) 8년 전의 아내와 주고받은 편지 다발 어디에 두었는지 마음에 걸리네.(76)
- (4) 병원에 와서 처와 아이를 가엽이 여기는 진정한 나로 돌아가는구나.(107)
- (5) 언젠가 꼭 출간하려는 그 책의 표지 등 아내에게 말한다.(124)
- (6) 아이를 꾸짖는 가련한 이 마음 고열이 나는 날의 버릇 일 뿐이라고 아내여 생각지마요.(127)
- (7) 친구도 아내도 가엽다고 생각하는구나 병들어도 여전히 혁명에 대한 말을 놓지 못하니.(146)
- (8) 다타미의 한 곳을 응시하는 그 때의 그 마음을 아내여 말하라고 하는가.(164)
- (9) 쫓겨난 여자처럼 내 아내가 행동하는 날 다알리아를 쳐다본다.(170)
- (10) 어느 날 문득, 병을 잊고 소가 우는 흉내를 내 본다 아내가 외출중에(181)
- (11) 뜰 밖을 흰 개가 지나가네 뒤돌아 보며 개라도 키울까 아내에게 물어보네.(194)

4. ‘세쯔코’를 읊은 단가(短歌)의 해석

- (1) 책을 사고 싶다 책을 사고 싶다고 빗대어 말 할 생각은 없지만 아내에게 말해 본다(6)

이 단가(短歌)에 대해 이와키 유키노리는 ‘괴로운 생활 속에서 책을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가난한 지식인의 탄식을 읊은 것’으로써 ‘빗대어 말해 보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빗대어 말하고 있는’ 타쿠보쿠의 ‘모순과 아내에 대한 어리광⁷⁾을 엿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와키의 해석과 같이 이 단가(短歌)에는 ‘가난한 지식인의 탄식’이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러한 ‘가난한 지식인의 탄식’과 ‘어리광’을 옆에

7) 岩城之徳(1985) 『石川啄木全歌評釈』 筑摩書房, p.296.

서 보고 있는 아내 세쓰코의 마음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사고 싶은 책을 사줄 수 없는 아내의 비애는 조금도 나타나 있지 않다. 아내 세쓰코는 타쿠보쿠의 ‘모순’과 ‘어리광’의 희생양임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2) 여행을 생각하는 남편의 마음! 꾸짖고 우는 처자식의 마음! 아침 식탁!(7)

이 단가(短歌)에 대해 이와키 유키노리는 「가난하기에 반복되는 가족의 갈등. 그러한 어두운 가정을 피하여 여행을 떠나고 싶은 작자의 울적한 마음이 단적으로 읊어져 있다.」⁸⁾ 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와키의 해석처럼 이 단가(短歌)에는 ‘가난함 때문에 반복되는 가족의 갈등’으로부터 타쿠보쿠가 느끼는 억압감과 그 억압감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시인으로서의 비애가 읊어져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타쿠보쿠는 ‘꾸짖고 우는 처자식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 가족의 처지는 이해하지 못한 채 혼자만의 여행을 생각한다. 또한, 처자식을 가여워하는 자기 자신에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함으로써 만족감을 얻으며, 항상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 자기 완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자기 자신의 위로를 위해 ‘아내’를 이용하는 격이다.

타쿠보쿠는 본래 가족의 기본 단위인 ‘부부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과거 일기에 ‘현재의 부부제도- 모든 사회제도는 모두 엉터리다. 나는 왜 부모나 아내, 자식 때문에 속박되어야 하는가? 부모나 아내, 자식은 왜 나의 희생이 되어야 하는가? 그러나 그것은 내가 부모나 세쓰코, 료코를 사랑하고 있는 사실과는 원천적으로 별개의 문제다.’⁹⁾라고 쓰고 있다. ‘부부제도’가 만들어 내는 가족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엿 볼 수 있다.

타쿠보쿠 이러한 ‘부부제도’나 가족에 대한 회의적 시각에 대해 나카야마 카즈코(中山和子)는 ‘근대의 가부장적“집안(家)”제도의 결과’¹⁰⁾를 그 배경으로 해석하고 있다.

(3) 8년전의 아내와 주고받은 편지 다발 어디에 두었는지 마음에 걸리네.(76)

이 단가(短歌)에 대해 이와키 유키노리는 ‘8년전은 두사람이 결혼한 메이지37

8) 上掲書, p.296.

9) 石川啄木(1986) 「ローマ字日記(明治四二年四月十五日)」 『石川啄木全集 第六卷』 筑摩書房, p.141.

10) 淡江大学日本語文学系編(1991) 『國際啄木学会台北大会論集』 p.127.

년을 말한다’ ‘젊은 날의 작열하는 사랑을 회고하며, 그 사랑의 편지 다발을 넣어둔 채로 꺼내어 볼 여유 없는 현재의 생활을 읊은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타쿠보쿠는 아내 세쓰코와의 연애 편지에 대한 추억을 회상하며 메이지39년 12월26일자 일기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꺼낸 것은 몇 백통의 편지 다발. 아 이것이 즉 나 자신의 젊은 피와 눈물의 징표, 나의 첫사랑, 아니 일생에 한 번의 사랑의 이야기다. 나와 아내<세쓰코>의!

읽어 가는데, 눈에 띄는 것은 아 지나간 날의 색과 향기. 기쁨의 눈물과 슬픔의 눈물로 써내려간 우리 둘의 생명의 그림 책!!! -중략-

과거에 2번 죽으려 마음먹은 적이 있는 이 몸, 지금 여전히 살아서 게다가 기쁨을 갖고 살아있는 것은 단지 당신이라는 연인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타쿠보쿠는 지난 날 아내‘세쓰코’와의 사랑의 징표인 ‘백통의 편지 다발’을 꺼내어 그것은 ‘일생에 한 번의 사랑의 이야기’이며, ‘기쁨의 눈물과 슬픔의 눈물로 써내려간 우리 둘의 생명의 그림 책’이라고 그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것이다. 타쿠보쿠에게 이‘백통의 편지 다발’이 갖는 의미가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것이였다면, 아내‘세쓰코’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의미였을까?

이 단가(短歌)가 쓰여지는 시기가 메이지44년경임을 생각해보기로 하자. 그 당시는 타쿠보쿠에게 있어 문학적으로 생활적으로 암울한 시기였음이 전기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문학적 실패에 의한 생계비의 부족은 아내 세쓰코의 입장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세쓰코는 자신의 젊은 날의 추억의 징표인 ‘백통의 편지다발’을 적어도 타쿠보쿠보다는 가슴 아픈 애절한 징표로써 바라보지 않았을까? 즉, 타쿠보쿠가 ‘백통의 편지다발’에 느끼는 몇배의 애상을 아내 세쓰코는 느끼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4) 병원에 와서 처와 아이를 가여워하는 진정한 나로 돌아가는구나.(107)

이 단가(短歌)의 첫 게재는 “창작” 메이지44년3월호이다. 이것으로 보아 창작 시기는 메이지44년3월 직전이라고 생각된다. 타쿠보쿠는 동년2월1일 도쿄제

국대학 의과대학부속병원 미우라내과에서 진찰을 받고 입원을 권고 받았다. 그리고 삼일 후인 2월 4일 만성복막염으로 도쿄제국대학 의과대학부속병원 아오야마내과에 입원 후, 3월15일 퇴원하였다. 이 단가(短歌)는 이러한 배경하에 쓰여진 단가(短歌)라고 생각된다.

이 단가(短歌)에 대해 이와키 유키노리는 ‘입원이라는 뜻밖의 상황을 통하여, 가족과 떨어진 생활을 보내는 동안에, 어느 사이에 평소의 고뇌와 초조를 초월하여, “처와 아이를 가여워하는” 본래의 인간적인 나로 돌아간 것’을 읊은 단가(短歌)라고 해석하고 있다.¹¹⁾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야 ‘처와 아이’의 소중함을 비로써 느끼는 타쿠보쿠의 비애도 슬프지만, 이러한 상황을 감내해야 하는 아내 ‘세쓰코’의 비애는 더욱 큰 것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5) 언젠가 꼭 출간하려는 그 책의 표지 등 아내에게 말한다.(124)

이 단가(短歌)에 대해 이와키 유키노리는 ‘언젠가 꼭 출간’하려고 생각했던 책에 대해 처녀시집 “동경”에 이은 제2의 시집 또는 토키 아이카(土岐哀果)와 출간하려 계획했던 문예잡지 ‘수목과 과실’을 상정하고 있다.¹²⁾

타쿠보쿠는 모리오카 중학교 5년 중퇴 후 문학적 성공에 의해 인생을 개척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메이지 38년 세쓰코와 결혼 후 곧 문예잡지 “소천지”를 간행하는데, ‘문학자로서 재기를 도모하고’ ‘일가의 수입’¹³⁾을 얻으려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음이 전기 연구에 의해 밝혀져 있다. 이후, 타쿠보쿠는 홋카이도 방랑을 뒤로 하고 상경한 후, 문학적 성공을 위해 소설을 다수 집필하지만 팔리지 않는 등 한계를 드러낸다. 이것은 곧 생계의 곤란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타쿠보쿠는 문학적, 생활적 성공을 위해 ‘책’의 ‘출간’을 계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결과는 타쿠보쿠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았음이 전기적 연구에 의해 알려져 있다.

이러한 타쿠보쿠의 좌절과 비애를 아내 세쓰코는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 타쿠보쿠의 문학적 성공을 아내 세쓰코는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었을까? 타쿠보쿠가 또 ‘언젠가 꼭 출간하려는 그 책’에 대해 세쓰코는 어쩌면

11) 岩城之徳(1985)『石川啄木全歌評釈』筑摩書房, p.347.

12) 上掲書, p.356.

13) 石川節子(1978)『石川啄木の手帳』学灯社, p.96.

말할 수 없는 비애를 마음 속 깊이 감내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6) 아이를 꾸짖는 가련한 이 마음 고열이 나는 날의 버릇 일 뿐이라고 아내
여 생각지마오.(127)

이 단가(短歌)에 대하여 이와키 유키노리는 ‘자신이 아이를 꾸짖는 것은, 단지 병에 기인한 초조함으로 꾸짖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를 되돌아보고, 적어도 자식에게만은 보다 행복한 삶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한 것이다. 그래서 아이를 꾸짖는 것이다’¹⁴⁾ 라고 해석하고 있다.

전술하였지만, 타쿠보쿠는 메이지44년 3월 15일 도쿄제국대학 의과대학부속 병원 아오야마내과로부터 퇴원하였으나, 몸의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단가(短歌)의 첫 게재는 “신일본” 메이지 44년 7월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단가(短歌)의 창작 시기는 메이지 44년 아오야마내과 퇴원 후라고 생각된다. 이 시기의 타쿠보쿠의 몸의 건강 상태는 악화 일로의 상황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단가(短歌)는 창작되었다고 생각된다. 즉, 전술한 107수의 단가(短歌)에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키는 타쿠보쿠가 아이를 꾸짖는 이유에 대해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것은 타쿠보쿠의 입장에서 타쿠보쿠를 합리화시키는 시각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내 세쓰코의 시각에서 보면, 아이를 꾸짖는 남편 타쿠보쿠의 행동에 정당성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시는 가부장제도가 철저히 지켜지던 시기로 가부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남편 타쿠보쿠를 근대적 신식여학교 출신인 아내 세쓰코는 회의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꾸짖’음 당하는 아이의 입장을 생각하며 엄마의 시각에서 남편 타쿠보쿠를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7) 친구도 아내도 가엾다고 생각하는구나 병들어도 여전히 혁명에 대한 말을
놓지 못하니.(146)

14) 岩城之徳(1985)『石川啄木全歌評釈』筑摩書房, p.358.

이 단가(短歌)에 대해 이와키 유키노리는 ‘병에 걸렸어도 더욱 혁명에 대한 의지와 정열을 버리지 못하고, 이것을 말하는 자신을 친구나 아내가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의 단가(短歌)인데, 대역사건 후의 “혹한기”에 지어진 것인 만큼, 친구나 아내의 우려에 현실감이 있으며, 또한 자기 사상의 고립을 의식하는 타쿠보쿠의 불안함이 있다’¹⁵⁾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 단가(短歌)의 첫개재는 “신일본”메이지 44년 7월호이다. 창작 시기는 전술한 127수와 비슷한 시기 즉 메이지44년3월의 아오야마내과 퇴원 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의 127수에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키 유키노리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 단가(短歌)가 지어지는 시기가 ‘대역사건 후의 “혹한기”’임을 고려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타쿠보쿠는 사상범으로서 당국에 체포될 수도 있는 금기어인 ‘혁명’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타쿠보쿠의 정신적 자유 분방함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타쿠보쿠를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 아내 세쓰코의 걱정은 있어도, 세쓰코를 걱정하는 타쿠보쿠의 배려는 단가(短歌)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8) 다타미 한 곳을 응시하는 그 때의 그 마음을 아내여 말하라고 하는가.(164)

이 단가(短歌)에 지어지기 직전인 메이지44년 6월 세쓰코가 친정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를 둘러싸고 타쿠보쿠와 세쓰코는 큰 갈등을 겪게 된다. 결국 타쿠보쿠는 일방적으로 이혼을 선언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와키 유키노리는 ‘부부간의 그러한 절박한 사정과 직접적으로 연관’¹⁶⁾된 것을 나타내고 있는 단가(短歌)라고 해석하고 있다.

‘다타미 한 곳을 응시하는 그 때의 그 마음을’¹⁷⁾ 밝히라고 재촉하는 세쓰코를 타는 불만스럽게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타쿠보쿠의 ‘마음’은 아내 ‘세쓰코’에게 전달되지 않은 채 타쿠보쿠 스스로가 침묵 속으로 가뒤편에 있다. 이마이 야스코(今井泰子)는 ‘어떠한 희망도 없는 현재의 암담한 마음 속’을 ‘아내에게 알리고 싶지 않음을’ 바라는 단가(短歌)¹⁷⁾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아내여 말하라고 하는가’는 말에는 교묘함이 내재되어 있다. 이 말에는 아내 이상으로 타쿠

15) 岩城之徳(1985)『石川啄木全歌評釈』筑摩書房, p.367.

16) 上掲書, p.376.

17) 今井泰子(1969)『日本近代文学大系23 石川啄木集』角川書店, p.202.

보쿠 자신도 괴로움을 참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미가 함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9) 쫓겨난 여자처럼 내 아내가 행동하는 날 다알리아를 쳐다본다.(170)

이 단가(短歌)는 선행연구에서 해석이 분분한데, 그 대부분은 ‘쫓겨난 여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현재의 일반적인 해석은 ‘쫓겨난 여자’는 ‘추방당한 여자’ 또는 ‘이혼당한 여자’로 이해되고 있다.¹⁸⁾

이것에 대해, 오오타 노보루(太田登)는 ‘다알리아’는 ‘남편의 등 돌린 시선을 부각시키며, 더불어 스스로의 자아적인 삶을 취하기 위해 타쿠보쿠가 언급한 “꽃”이라는 해석을 하며, “필시”“필연”이라는 고차원의 사고를 더욱 에네르기쉬하는, 새로운 “꽃”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적극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¹⁹⁾

그러나, 이 단가(短歌)도 세쓰코의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쫓겨난 여자’와 같은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을 타쿠보쿠는 취하고 있으면서도 ‘다알리아’로 눈을 돌림으로써 결국 자기 내부로 귀결되는 지금까지와 변한 것 없는 타쿠보쿠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0) 어느 날 문득, 병을 잊고 소가 우는 흉내를 내 본다 아내가 외출중에(181)

이와키 유키노리는 이 단가(短歌)에 대해 <타쿠보쿠의 단가(短歌)는 해학 속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는데, 이 단가(短歌)는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조금이라도 질병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타쿠보쿠의 모습을 암시>²⁰⁾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마이 야스코(今井泰子)는 ‘질병은 이 시기 최대의 절대적 문제이기 때문에 “질병을 ~ 해본다”는 모든 것을 잊고 소가 우는 흉내를 내보는 한 때를 보내는 의미로, ‘아내의 외출 중’으로 한정하여, 소리만이 아니라 행동도 이것저것을 흉내 내 보는 것을 암시, 긴장감 없는 우둔하고 무심한 소리를 흉내 내어 가족이 없는 홀가분함을 즐기고 있는 단가(短歌). 더욱 소라도 되고 싶다고 말하고 싶은 듯한 슬픔을 전하고 있다.’²¹⁾라고 해석하고 있다.

18) 岩城之徳(1985)『石川啄木全歌評釈』筑摩書房, p.379.
19) 太田登(1991)『啄木短歌論考 抒情の軌跡』, 八木書店, p.186.
20) 上掲書19, p.384.
21) 今井泰子(1969)『日本近代文学大系23 石川啄木集』角川書店, p.206.

바보 같은 행동을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질병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타쿠보쿠의 모습을 암시’한 이와키 유키노리의 해석도, ‘소의 흉내’를 내면서 ‘가족이 없는 흥가분함을 즐기고 있는 단가(短歌)’라고 해석하는 이마이 야스코의 해석도 시점은 타쿠보쿠에게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내의 외출 중’에만 이러한 해학을 시도해 보는 타쿠보쿠의 비애에 대해, 만일 아내가 일찍 귀가 하여 소의 흉내를 내는 이러한 우수한 타쿠보쿠의 모습을 보았다면 아내‘세쓰코’의 비애는 더욱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내의 비애나 슬픔을 걱정하는 시선은 이 단가(短歌)에서도 느낄 수 없다고 생각된다.

(11) 뜰 밖을 흰 개가 지나가네 뒤돌아 보며 개라도 키울까 아내에게 물어보네.(194)

이 단가(短歌)에 대해 이와키 유키노리는 “‘뒤돌아 보며, 개라도 키울까 아내에게 물어보네.’에 아내 세쓰코에 대한 애뜻한 정감과 대립이 풀린 온화한 감동이 느껴²²⁾진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우에다 히로시(上田博)는 이 194수의 단가(短歌)를 181수에 이어지는 것으로 ‘아내와 남편은 서로 속박을 느끼며, 그곳으로부터의 자유를 회구하면서, 한편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감정, 격렬하게 서로 회구하는 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타인의 눈으로 보는 부부사이, 그 미묘한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처자식이 집을 비운 사이 “소가 우는 흉내”를 내는 남편도 “개를 기르고 싶다”고 아내에게 상의하는 남편도, 이것을 이중적이라고 보는 것은 남녀관계의 리얼리티로부터 백보 천보나 떨어지는 것이다.’²³⁾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타쿠보쿠의 시선에서 그려져 있는 이 단가(短歌)에서 ‘아내’도 또한 ‘격렬하게 서로 회구’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아내’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표현되어 있어야 비로써 객관적으로 부부관계에 대해 언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우에다 히로시의 이러한 해석의 배경에는 타쿠보쿠의 문학적 아우라에 대한 평가에 ‘천재시인’이라는 타쿠보쿠 연구계에 형성되어 있는 연구 풍토, 남성 중심적 사고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22) 岩城之徳(1985)『石川啄木全歌評釈』筑摩書房, p.391.

23) 上村悦也, 上田博, 太田登(1994)『悲しき玩具 啄木短歌の世界』世界思想社, p.135.

5. 맺음말

이상 “슬픈 장난감”에 나타난 아내‘세쓰코’의 의미를 세쓰코의 시선으로 해석해 보았다.

아내‘세쓰코’는 타쿠보쿠의 사랑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 사랑을 회상시키는 조연역으로서 그려져 있는 것이다. 타쿠보쿠는 고통스런 현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과거 회상의 대상으로서 아내‘세쓰코’와의 사랑을 회상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또는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아내와 아이를 등장시켜 사랑이라는 이름아래 슬픔을 노래하는 단가(短歌)의 소재로 포장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6수, 124수, 194수의 단가(短歌)에는 아내‘세쓰코’에게 말을 건네는 즉 표면적으로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나타내는 일상적 화목함이 그려져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타자로서의 피상적 시선에 불과한 것으로써 아내‘세쓰코’의 입장이나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参考文献】

- 石川啄木(1986) 「ローマ字日記(明治四二年四月十五日)」 『石川啄木全集 第六卷』 筑摩書房, p.141.
- 今井泰子(1969) 『日本近代文学大系23 石川啄木集』 角川書店, p.202、p.206.
- 岩城之徳(1985) 『石川啄木全歌評釈』 筑摩書房、p.296、p.331、p.347、p.356、p.358、p.367、p.376、p.379、p.384、p.391.
- 岩城之徳編(1981) 「石川小伝」 『別冊国文学NO.11 石川啄木必携』 学灯社、p.222.
- 上村悦也, 上田博, 太田登(1994) 『悲しき玩具 啄木短歌の世界』 世界思想社、p.135.
- 国際啄木学会編(2001) 『石川啄木事典』 おうふう、p.612.
- 石川節子(1978) 『石川啄木の手帳』 学灯社、p.125.
- 淡江大学日本語文学系編(1991) 『国際啄木学会台北大会論集』 p.127.

논문 투고 일자 : 2018. 12. 30.
논문 심사 일자 : 2019. 01. 31.
게재 확정 일자 : 2019. 02. 01.

 <要旨>

 石川啄木の短歌に表れた節子
 - 『悲しき玩具』を中心に -

尹在石

以上、『悲しき玩具』に歌われている妻「節子」の意味を妻「節子」の視線で読み直して見た。『悲しき玩具』における「節子」は啄木の恋の主人公ではなく、啄木の恋を思い出させるわき役にしか歌われていない。啄木は現実の苦痛から逃れるため、過ぎ去ったかつての思い出の対象として「節子」との恋を回想しているだけである。言い換えれば、生活的文学的行き詰まりの中から逃れるため、妻や子供を歌の素材にし、恋や家族という名の下にその悲しさを詠んでいるのであると言える。

例えば、6首、124首、194首の歌には啄木が妻「節子」に陸まじく何かを呼び掛けるしぐさが歌われている。表向きには、普通の家庭で夫が妻に話しかけている時の日常的なあの陸まじさであろう。しかし、その歌における啄木の視線は他者としてのものであるに過ぎない。啄木の視線に妻「節子」の処している立場や事情などはどこにも歌われていないのである。

 A Study of Ishikawa Takuboku's Tanka
 - In The Case of Setsuko in "Sad Toys" -

Yun, Jae-Seug

As above, I read the meaning of his wife, Setsuko, written in "Sad Toys" with his wife in sight. Setsuko in "Sad Toys" is not the main character of Takuboku's love. It is only a coworker reminding Takuboku's love. Takuboku is recalling love with Setsuko as a subject of old memories in order to escape from the pain of reality. In other words, Takuboku use themes of my wife and child to escape the living and literary deadlock. Moreover, it can be said that it is writing sadness under the name of love or family.

For example, in Uta of 6, 124, 194, Takuboku is kindly writing a gesture calling for something to meet with his wife Setsuko. For face to face, it would be that daily kindness when my husband is talking to my wife at a normal home. However, the eyes of Takuboku on Uta are just as others. The position and circumstances of the wife Setsuko on Takuboku's eyes of sight are not written anywhere.